

“복지 관련 부정·비리 등 제보 받습니다”

☎ 062-971-7400



# 복지 데스크

## 장성군 장애인 가을의 중심을 축제로 물들이다

18일 군민회관서 장성장애인협회 주최 ‘한마음 대축제’ 가져

‘역대 최대 규모’ 1천500여명 참가...다채로운 행사 펼쳐져



유두석 장성군수가 장애인들의 복지증진에 기여한 우수 회원과 행사 지원단체 관계자들에게 표창장을 수여하고 있다.

‘풍요와 결실의 계절’ 가을에 장성 지역 장애인들이 한자리에 모여 서로 정을 나누고 우의를 다지는 뜻 깊은 행사가 열렸다.

‘2019 장성군 장애인 한마음 대축제’가 그것으로 장성에 거주하는 장애인들과 자원봉사자, 사회단체 회원, 군민 등 1천500여 명은 지난 18일 장성군민회관에서 공연 관람과 노래자랑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통해 가을의 정취를 만끽했다.

장성장애인협회(회장 김평호)가 주관하고 장성군이 후원한 이날 행사는 장애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장애인들의 재활의욕을 높여 보다 풍요로운 삶을 영위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마련된 것으로 지난 2013년 처음 시작돼 올해로 7회째를 맞아 지역에서 거주하는 장애인들뿐만 아니라 가족, 친지 등 역대 최대 인원이 참여했다.

특히 대한적십자사 장성군지회와 장성군보건소, 장성소방서 등 유관기관에서는 별도의 공간을 마련, 참가자들의 건강과 미용, 생활상식 등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큰 인기를 끌었다.

상무대 군악대와 장성국악협회의 식전 공연으로 시작된 행사는 오전

11시 KBC 광주방송 장예진 아나운서의 사회로 1부 ‘한마음 대축제’의 성대한 막이 올랐다.

장성장애인협회 고은주 부회장의 개회선언에 이어 국민의례와 결의문 낭독이 있었으며, 장애인 복지 증진에 기여한 모범 장애인 11명과 행사 진행에 많은 도움을 준 국군 제51군수지원단 관계자 8명에 대한 군수 표창이 실시됐다.

이어진 2부 ‘화합의 장’은 CMB 광주방송 신조한 MC의 사회로 축하공연과 읍·면 장기자랑, 행운권 추첨, 기념품 증정 등 다채로운 행사가 펼쳐졌다.

김평호 회장은 대회사에서 “하루에 한 번이라도 전화해 안부를 묻는 것이 사랑이자 가장 따뜻한 복지”라면서 “서로가 서로에게 따뜻한 난로가 되도록 노력하자”고 당부했다.

이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서면으로 대신한 축사를 통해 “진정한 선진 복지사회는 장애인이 행복한 사회가 되었고, 장애인의 공간을 마련, 참가자들의 건강과 미용, 생활상식 등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큰 인기를 끌었다.”

장성=백종영 기자



실로암장애인자립생활센터가 18일 오후 서울 관악구의 봉천역 인근에서 한자리에 모여 시각장애인 당사자 이동 및 접근권 향상을 위한 거리행진을 하고 있다.

### “시각장애인 보행권 확보해 자립권 완성하라” 도심 행진

시각장애인들이 이동 및 접근권 향상을 촉구하면서 거리행진을 진행했다.

실로암장애인자립생활센터는 18일 오후 서울 관악구 봉천역에서 서울대입구역까지 거리행진을 벌였다. 행진에는 시각장애인과 봉사자 약 150명이 참석했다.

이들은 ‘불법 블라드 전면 교체’ ‘비장애인 이동권 보장’ ‘교통약자 조례제정’이 적힌 어깨띠를 매고 일부는 ‘시각장애인도 자유롭게 걷고 싶다’ ‘음향신호기 없는 횡단보도 비장애인 따라가다 죽는다’ 팻말을 들고 봉천역과 서울대입구역 사이 차도를 행진했다.

행진 전 이들은 “지역사회에서 시각장애인이 안전하게 생활하고 최선의 이익을 누릴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환경개선을 추진하고 직원들에 대한 교육을 적극적으로 실시할 것”이라는 결의문을 낭독했다.

이어 “정부 및 지자체와 함께 노력해 정책 및 제도 개선과 장애인 복지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며 “관악구는 장애인 이용시설 및 자립생활센터 500m 인근의 장애인보호구역 조례제정에 최대한 노력해줄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행진에 참석한 시각장애인들도 “보행권 확보해 자립권 완성하라” “편의시설 설치하면 모두가 편해진다” “이동권을 보장하라”고 주장했다.

실로암장애인자립생활센터 관계자는 “한 자립의 날을 기념해 처음 열리는 행사로, 시각장애인의 이동 및 접근성 향상을 위해 불법블라드 전면교체, 건물폭 음향신호기 전면설치와 교통약자 조례제정(지하철 500m 내 장애인보호안전구역 제정)을 목적으로 개최했다”고 설명했다.

### 광양시, ‘장애인 콜택시 이용요금’ 버스 수준 인하

오늘부터 기본 2km 500원으로 · 추가 1km당 100원으로 조정

광양시는 21일부터 교통약자 이동지원차량(장애인콜택시) 이용요금을 버스요금 수준으로 인하한다. 이번 요금인하로 기본 2km 700원은 500원으로, 추가 400m당 100원은 1km당 100원으로 조정됐다. 95초마다 100원씩 추가되었던 시간요금은 폐지하고, 기존의 심야·시외운행에 적용하던 20% 할증은

기본요금의 2배인 2km당 1000원, 1km당 200원 추가로 변경된다. 특히 기존에 없었던 상한액이 생겨 기존 택시요금 1/2수준에서 지역내는 시내버스 요금으로, 광주·전남 지역은 시외버스 요금 수준으로 이용이 가능하다. 광양시는 ‘전라남도 광역이동지원센터 운영지침’을 반영해 이번 요

금 인하를 결정했으며, 요금 인하로 감소된 운송수익금은 도비 보조금으로 충당할 계획이다. 운행 구역은 광주시를 포함한 전남 전 지역이며, 이용 대상은 장애의 정도가 심한 보행상 장애인, 노약자, 임산부 등 대중교통의 이용이 어려운 사람이다. 교통약자 이동지원차량(장애인콜택시) 이용을 위한 등록은 전남광역시 이동지원센터를 통해 가능하다.

### 발달장애인 거점병원

서울대병원 추가 지정

보건복지부는 서울대병원을 발달장애인 거점병원 및 행동발달증진센터로 추가 지정했다고 18일 밝혔다. 발달장애인 거점병원 및 행동발달증진센터는 법률에 따라 발달장애인의 의료 서비스를 효율적·체계적으로 이용하도록 돕고, 행동 문제를 치료하기 위해 복지부 장관이 지정하는 의료기관이다. 발달장애인 거점병원은 2016년 한양대병원과 양산부산대병원 2개소에서 운영을 시작해 올해 6월 인하대병원, 강원대병원, 충북대병원, 전북대병원 등 4개소를 추가로 지정했다.

**야호센터는 인문-예술-사회참여로 청소년-지역주민과 함께합니다.**

**야호는 청소년의 외침이다.**

**야호의 꿈**

- 청소년이 지금 행복한 삶
- 청소년이 사유하는 삶
- 청소년이 예술을 향유하는 삶
- 청소년이 마을을 사랑하는 삶
- 마을 주민들이 세계시민이 되는 삶
- 마을 주민들이 삶을 위한 공부를 하는 삶
- 마을 주민들이 스스로, 더불어 살아가는 삶

Drawing 이호동

062-960-6980  
광산구 사암로 340번안길 5

**Together 광산구**